



신세계17번 추신수...당당한 귀국 인사

신세계 입단을 확정된 '추추 트레인' 추신수(39)가 금의 환향한 25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은 많은 취재진으로 붐볐다. 추신수가 23일 신세계와 연봉 27억 원에 계약하며 KBO리그행을 선언한 것은 엄청난 이슈였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시즌도 거르지 않고 메이저리그(ML) 통산 1652경기에 출장한 데다 복수의 빅리그 구단들의 영입 제안을 뿌리치고 한국행을 택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팬들까지 몰려들진 않았지만, 추신수를 향한 취재 열기만으로도 그가 지닌 파급효과를 실감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장시간 비행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에피소드도 있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추신수와 취재진의 인터뷰는 전화로 이뤄졌다. 추신수의 국내 에이전트를 담당하는 송재우 갤럭시시SM 이사가 이동 중인 추

"내가 잘해서 신세계가 좋은 성적 내길 한국행 잘한 결정이란걸 꼭 증명할 것"

신수에게 일찌감치 취향한 질문을 건네고 답변을 받아 취재진에게 전달하는 형태였다. 곧바로 자가격리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추신수는 "정말 설레는 마음이다. 20년 만에 한국에서 야구를 하게 됐다.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선수단에 합류하면 그때 뭔가 외당을 것 같다"고 밝혔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인천국제공항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1위
ABC 골인 유로, 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전설매치’ ‘홍명보 데뷔전’...개막전 스토리 풍년

내일 2021 K리그 팡파르...디펜딩 챔프 전북 vs 라이벌 FC 서울 첫 격돌

전북, 일류첸코 수현, 이동국 공백 커버
김상식 감독, V5 위한 첫 승 사냥 의지
서울도 팔로세비치·나상호로 화력 보강
박진섭 감독 "치유와 회복의 시즌 될 것"
울산 vs 강원, 홍명보-이영표의 대리전



"반갑다, K리그!"
챔피언을 향한 긴 레이스, 초록 그라운드
의 향연이 시작된다. '하나원큐 K리그
2021'이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사흘에
걸쳐 개막전(라운드)을 소화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경기는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K리그
1(1부) 공식 개막전이다. 오랜 라이벌인 두 팀의 대결
은 구단 앞 글자에서 따와 '전설 매치'로 불리며 스포
트라이트를 받아왔다.

지난 시즌 '더블(2관왕·리그+FA컵)'에 성공한 전
북은 K리그1 5연패를 노린다. 4월 시작할 아시아축구
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까지 '트레블(3관왕)'
을 달성하기 위해 겨울이적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
였다. 지난해 K리그1 득점 2위 일류첸코(러시아)를 데
려와 베테랑 스트라이커 이동국의 은퇴 공백을 메웠
고, 중앙 미드필더 류재문과 23세 이하(U-23) 대표팀
측면 수비수 이유현까지 합류시켜 전력을 끌어올렸
다. 여기에 '라인 브레이커' 김승태와 최영준, 정혁 등
임대 멤버들도 복귀시켜 공수의 안정감을 더했다.

쿠니모토(일본)와 이승기가 부상 중이지만 전북은
자신만만하다. 기분 좋은 기억도 있다. 2012년 이후 홈
개막전에서 전북은 무패행진을 이어왔다. 서울과 최근
10차례 맞대결 성적도 8승2무로 압도적이다. 조세 모
라이스 감독(포르투갈)의 뒤를 이어 전북 지휘봉을 잡
은 김상식 감독은 "열심히 새 시즌을 준비했다. 리그
5연패를 위해 첫 단추를 잘 채우겠다"고 다짐했다.

부담스러운 전주성 원정이지만 서울 역시 호락호락

물러설 수 없다. 올 시즌 서울에 부임한 박진섭 감독도
만족스러운 프리시즌을 보냈다. 일류첸코와 포항 스틸
러스에서 호흡을 맞췄던 '특급 미드필더' 팔로세비치(세
르비아)와 국가대표 측면 공격수 나상호를 영입했다.

특히 기성용과 오스마르가 구축할 중원은 서울의
큰 힘이다. 최전방과 리빙딩의 폭이 큰 수비가 다소 걱
정스럽지만 1골을 내주면 2골, 2골을 허용하면 3골을
넣겠다는 자신감이 가득하다. 박 감독은 "서울은 항상
위를 바라봐야 한다. 치유와 회복의 시즌이 될 것이다.
오늘과 내일을 아우르는 팀으로 명성을 되찾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3월 1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릴 울산 현대-강원F
C전 또한 관심을 모은다. 홍명보 울산 감독의 K리그
사령탑 데뷔전이다. 득점왕 주니오가 떠났지만 오스
트리아국가대표 힌터제어와 조지아대표팀 측면 공격
수 바코가 합류했다. 이 중 힌터제어는 첫 경기부터 출
격이 가능하다. 김지현, 이창용, 이동준, 이동경 등과
호흡을 맞춰 화력전을 전개한다. "아기자기하면서 역
동적인 축구를 하겠다"고 홍 감독은 약속했다.

올해 초 취임한 이영표 대표이사의 적극적 지원 속
에 김대원, 임창우 등 알짜배기들을 영입한 강원은 파
이널 라운드 상위그룹(1~6위) 진입 이상의 성과를 노
린다. 울산에 약했던 과거를 딛고 적지에서 기분 좋은
승점 3을 챙기면 목표 달성은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

한편 27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선 젊음에 이근호, 이
용래의 경험을 더한 대구FC와 박주호, 윤영선, 정동호
등 베테랑들을 대거 수혈한 수원FC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 28일 포항 스틸아드에서 열릴 포항-인천 유나이
티드전은 포항에서 인천으로 이적한 베테랑 수비수 김광
석으로 인해 새로운 스토리가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삼일절 3월1일(월)자 신문입니다. sportsdonga.com
뉴스서비스는 계속됩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풍성한 스토리를 가득 담은 K리그의 2021시즌이 27일 전주에서 열릴 전북-서울의 1부 공식 개막전을 시작
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새 시즌을 앞두고 지휘봉을 잡은 김상식 전북 감독(왼쪽 위부터 시계방향)과 홍명
보 울산 감독은 설렘이 가득하고, 꾸준히 팀을 이끌어온 김병수 강원 감독과 광주에서 옮긴 박진섭 서울 감독
도 나름의 사연과 의지로 영광스러운 시즌을 다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Returnup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맨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